



예수간호동문회보

제 3 호
1999. 11

발행인:공순구/편집인:김강미자/발행:예수간호대학 동문회/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68-1(560-250)/(0652)230-7700/Fax (0652)230-7790



3회 동문 1학년 가관식 직후 사진입니다.
앞으로 회보의 사진은 졸업 회기별로 지속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호에는 4회동문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차 례

1 / 제3회 동문
2 / 실습가는 길
3 / 권두언
4 / 시

5 / 전체 이사 명단
6~9 / 동문 선교활동
10~11 / 동문탐방
12 / 동문수필

13 / 동문회소식
15 / 모교소식
16 / 동문들께 알립니다

새천년은 우리대학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시기...



학장 / 양 광 자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즈음에, 예수간호대학 동문회보가 세 번째로 발간된다고 하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 회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보실 2,400여 동문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49년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려진 작은 씨앗이, 어느덧 이천사백여명의 동문을 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 동안 예수병원과 세계 각지에서 기독 간호사로, 선교사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우리 동문들의 노력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교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후원하여 주신 동문들의 뜨거운 사랑에 학장으로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다가올 새 천년은 우리 대학과 동문에게 있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자 대학 발전을 위한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문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은 동문 모두의 힘과 의지가 한 데 모아질때에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결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4년제 대학설립준칙에 따라 토지, 교사(시설설비), 교수·학생비율, 그리고 법인전입금 등을 기준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2400여 동문들께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로서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래할 2000년은 우리 대학에 있어서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이면, 우리 예수간호대학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교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오직 기독간호사 양성을 위해 외로운 길을 꿋꿋이 걸어온 지 반백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우리 대학을 위하여 은밀한 곳에서 물로 드러진 간절한 기도와 이름 없는 곳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과 동문회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특별한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기간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동문들이 그리운 추억, 보고 싶은 얼굴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느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을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 예수간호대학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



조민숙

불혹의 나이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방황도 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을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투명한 시선 속에서의 태양이
더욱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를 흘러보낸 우리에게
뒤돌아볼 수 있는 은총이 있어
아름다운 이유가 됩니다.
밤하늘 별들의 수만큼
세월 속에 누린 은혜,
처음 시작처럼 그 마음
이 자리에 바칩니다.

할 일 많은 세상의 밝은 빛이여!
새 천년, 새 시대의 눈부신
영광의 디딤돌이여!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인
- 1994. 10 문학세계로 등단
- 27회 동문
- 현 예수병원 의료보험심사
계장

예수간호대학동문 이사명

* : 평생회원(34명)

| 연번 | 회수 | 성명 |
|----|-----|-------|
| 1 | 1회 | 김정숙* |
| 2 | 1회 | 박해옥* |
| 3 | 1회 | 최순자 |
| 4 | 2회 | 공순구* |
| 5 | 2회 | 김은옥 |
| 6 | 4회 | 양순복* |
| 7 | 4회 | 이덕례 |
| 8 | 4회 | 이인수* |
| 9 | 4회 | 황희심* |
| 10 | 5회 | 이준례 |
| 11 | 5회 | 김정순 |
| 12 | 6회 | 박순옥* |
| 13 | 6회 | 서점순* |
| 14 | 6회 | 고유근* |
| 15 | 6회 | 김연자* |
| 16 | 6회 | 양광자* |
| 17 | 7회 | 이경자 |
| 18 | 7회 | 염정임* |
| 19 | 7회 | 라명희 |
| 20 | 8회 | 이 라 |
| 21 | 8회 | 백영애* |
| 22 | 8회 | 박희정 |
| 23 | 9회 | 양정복* |
| 24 | 9회 | 은재희* |
| 25 | 9회 | 임행자 |
| 26 | 10회 | 이순자 |
| 27 | 10회 | 박은영 |
| 28 | 10회 | 전혜경* |
| 29 | 11회 | 신정자* |
| 30 | 11회 | 오은자* |
| 31 | 12회 | 김성란* |
| 32 | 12회 | 이광자* |
| 33 | 12회 | 이향숙 |
| 34 | 12회 | 서명자 |
| 35 | 12회 | 양혜숙 |
| 36 | 13회 | 강희자 |
| 37 | 13회 | 박 정 |
| 38 | 13회 | 오순화 |
| 39 | 14회 | 김정숙* |
| 40 | 14회 | 유영삼 |
| 41 | 14회 | 정숙자 |
| 42 | 15회 | 김강미자* |
| 43 | 15회 | 양정숙 |

| 연번 | 회수 | 성명 |
|----|-----|------|
| 44 | 15회 | 최학례* |
| 45 | 16회 | 김금자* |
| 46 | 16회 | 권양순 |
| 47 | 16회 | 지옥순 |
| 48 | 16회 | 주정남 |
| 49 | 17회 | 박정순 |
| 50 | 17회 | 김용옥 |
| 51 | 17회 | 이학순 |
| 52 | 17회 | 조현숙 |
| 53 | 17회 | 김명숙 |
| 54 | 18회 | 박홍순 |
| 55 | 18회 | 류금주 |
| 56 | 18회 | 장현화 |
| 57 | 19회 | 유 순 |
| 58 | 19회 | 송국희 |
| 59 | 17회 | 유점순 |
| 60 | 19회 | 한금녀 |
| 61 | 20회 | 김봉선 |
| 62 | 20회 | 최옥주 |
| 63 | 20회 | 장은숙 |
| 64 | 21회 | 차혜영 |
| 65 | 21회 | 장용순 |
| 66 | 21회 | 서정자 |
| 67 | 21회 | 최정애 |
| 68 | 21회 | 박효순 |
| 69 | 22회 | 정여숙* |
| 70 | 22회 | 송성희 |
| 71 | 22회 | 이덕실 |
| 72 | 22회 | 조점엽 |
| 73 | 22회 | 김형자 |
| 74 | 23회 | 정정숙* |
| 75 | 23회 | 서인숙 |
| 76 | 23회 | 전영신 |
| 77 | 23회 | 고정순 |
| 78 | 23회 | 채영희 |
| 79 | 24회 | 양명순* |
| 80 | 24회 | 김경림* |
| 81 | 24회 | 배은경 |
| 82 | 24회 | 김숙희 |
| 83 | 24회 | 김순애 |
| 84 | 24회 | 황영숙 |
| 85 | 24회 | 유계숙* |
| 86 | 25회 | 김은숙* |

| 연번 | 회수 | 성명 |
|-----|-----|------|
| 87 | 25회 | 임순옥 |
| 88 | 25회 | 유금희 |
| 89 | 25회 | 정하숙 |
| 90 | 25회 | 유필숙 |
| 91 | 25회 | 김현숙 |
| 92 | 25회 | 이정희 |
| 93 | 26회 | 한혜실* |
| 94 | 26회 | 옥루수 |
| 95 | 26회 | 이혜숙 |
| 96 | 26회 | 양복순 |
| 97 | 27회 | 정명희 |
| 98 | 27회 | 윤 진* |
| 99 | 27회 | 이화주* |
| 100 | 27회 | 조민숙 |
| 101 | 27회 | 엄정이 |
| 102 | 27회 | 주은덕 |
| 103 | 27회 | 윤매옥 |
| 104 | 28회 | 백경자 |
| 105 | 28회 | 소성섭 |
| 106 | 28회 | 박정순 |
| 107 | 28회 | 김경희 |
| 108 | 28회 | 천성숙 |
| 109 | 28회 | 박양숙 |
| 110 | 28회 | 이옥주 |
| 111 | 28회 | 방현숙 |
| 112 | 28회 | 양명석* |
| 113 | 29회 | 송호은 |
| 114 | 29회 | 이효실 |
| 115 | 29회 | 유정애 |
| 116 | 29회 | 이성숙 |
| 117 | 30회 | 최대순 |
| 118 | 30회 | 김미선 |
| 119 | 30회 | 양영실 |
| 120 | 30회 | 이은규 |
| 121 | 30회 | 김난숙 |
| 122 | 30회 | 이순복 |
| 123 | 30회 | 이미선 |
| 124 | 31회 | 이미숙 |
| 125 | 31회 | 육현숙 |
| 126 | 31회 | 김은실 |
| 127 | 31회 | 남미숙 |
| 128 | 31회 | 서영희 |
| 129 | 31회 | 김정남 |
| 130 | 31회 | 고선화 |

| 연번 | 회수 | 성명 |
|-----|-----|-----------|
| 131 | 31회 | 송계숙 |
| 132 | 31회 | 박지숙 |
| 133 | 31회 | 이명남 |
| 134 | 31회 | 박혜숙 |
| 135 | 31회 | 박정자 |
| 136 | 31회 | 이은하 |
| 137 | 31회 | 강신자 |
| 138 | 31회 | 우정순 |
| 139 | 32회 | 함선희 |
| 140 | 32회 | 최경애 |
| 141 | 32회 | 김현주 |
| 142 | 32회 | 이정란 |
| 143 | 32회 | 이복경 |
| 144 | 32회 | 유순자 |
| 145 | 32회 | 성경자 |
| 146 | 32회 | 이옥희 |
| 147 | 32회 | 손영자 |
| 148 | 32회 | 김미연 |
| 149 | 33회 | 최봉남 |
| 150 | 33회 | 주인자 |
| 151 | 33회 | 박미경 |
| 152 | 33회 | 홍영란 |
| 153 | 33회 | 이승은 |
| 154 | 33회 | 정길순 |
| 155 | 33회 | 조현란 |
| 156 | 33회 | 김영숙 |
| 157 | 33회 | 김성미A |
| 158 | 33회 | 이성희(OR) |
| 159 | 33회 | 정수행 |
| 160 | 33회 | 배옥수 |
| 161 | 33회 | 배금배 |
| 162 | 34회 | 엄혜경 |
| 163 | 34회 | 김혜정 |
| 164 | 34회 | 곽경숙 |
| 165 | 34회 | 이 란 |
| 166 | 34회 | 양유미 |
| 167 | 34회 | 김미선(NICU) |
| 168 | 34회 | 이덕자 |
| 169 | 34회 | 백경아 |
| 170 | 34회 | 최정희 |
| 171 | 34회 | 곽계숙 |
| 172 | 34회 | 송남숙 |
| 173 | 34회 | 심선자 |
| 174 | 35회 | 양경자 |

동문선교사역의 현장-네팔



이춘심 선교사(23회)

저는 1985년 1월 20일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네팔 연합선교부(UMN)소속 의료선교사로 네팔에 오게되었습니다. 5개월 언어 훈련을 받은 후 파탄병원 마취과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큰 언어의 장벽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다의 단어를 구사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야말로 무능력! 저의 애타하는 한마디를 두마디, 세마디의 문장으로 연결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속에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며 보낸 3년이었습니다.



▲현지 의사들과 함께 수술하는 장면. 중앙에서 마취하고 있는게 필자입니다

안식년을 마친 후 다시 네팔에 돌아왔지만 복음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정부가 제게 골리앗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속에 몇명이 모여 성경공부가 시작되고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남편이된 반다리 목사도 그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소문들과 상황은 나를 조여왔고 정부의 압력은 성경공부를 중단시켰으나, 반다리 목사는 카투만 두 신학교의 전신을 잉태했으며 벤엘교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1년도 처음 신학 대학을 시작한 건물과 학생들

나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이 사역들을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에는 제가 너무 이기주의였고 자아중심적이었습니다.

도망하기를 2년 넘게, 결국은 '92년 네팔선교부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까진 사임되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있던 요나처럼 건강을 흔드시는 하나



▶ '91년도 신학대학의 첫 여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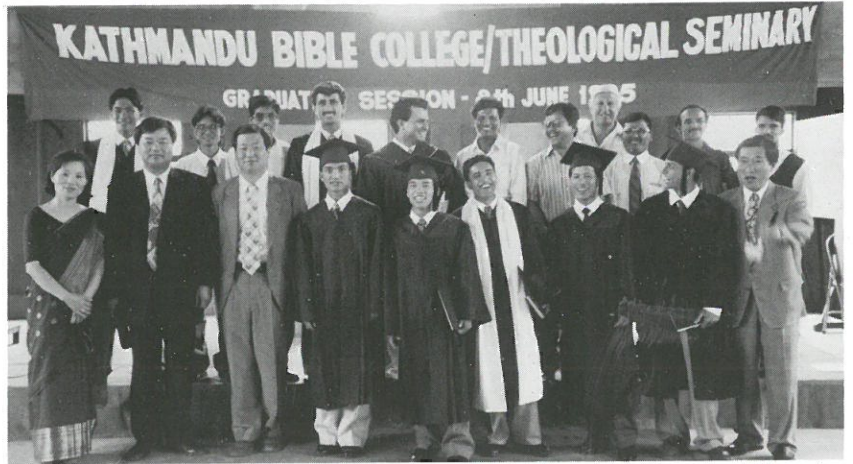
▲'92년 결혼식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져 수술을 받고 나의 한정된 남은 삶과 함께 네팔에 토해졌습니다. 그래도 환영해주는 믿음의 형제 반다리와 '92년 6월 결혼을했으나 오직 의지할 곳이라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뿐!

그동안, 도망다니며 피했던 사역들 : 신학교, 지도자양육, 교회당 건축, 그리고 남편 공부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미워서 울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울고... 울다보니 '95년 신학교 1회 졸업생 5명이 나왔고 '96년 4층 벨엘 교회당을 헌당하고, 1,500여명의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또 매년 배출되는 20여명의 신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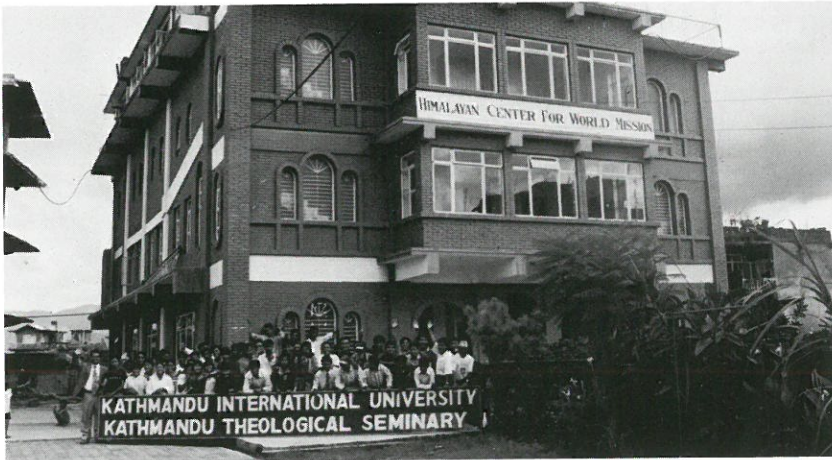
▲카투만두 신학대학 1회 졸업식(졸업생, 교수들, 손님들, 앞줄 왼쪽 첫번째가 필자)



◀ 목회자들 훈련중 강의시간에



▲ '99년도 복음을 받은 귀한 영혼들(전도 여행때 잠수에서)



▲99년도 신학생들과 함께 베델교회당앞에서

생들은 히말라야 각처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98년에는 HIMALAYAN MISSION를 미국에서 인가받게 하셔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고아들을 모으게 하셔서 어린이집을 허락 하셨습니다.

'99년도는 Kathmandu International University를 이



▶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남편 졸업식날 시아버님과 함께



▲기독교 카투만두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인가를 받은 후

나라 정부로 부터 인가받아 기독교 종합대학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또 남편의 공부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 126:5) 아픔을 씻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옥 선배님을 찾아서

탐방자 : 박정순·양복순

자그마한 키에 야무진 모습, 광주 터줏대감, 우리의 든든한 대 선배님, 박해옥 선배님을 만나 뵈었다. 믿음과 남을 돕는 기쁨으로 세상 풍파를 이기며 살아 오셔서 나이가 고회임에도 영롱한 눈빛을 지니신 생동감이 넘치시는 분이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맑은 눈빛은 정녕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려 하시는 사랑때문이 아닐까? 슬하에 2남2녀를 모두 전문인으로서 각자의 소임을 하며 다 출가하여 손자 손녀가 7명이나 된다. 조산소를 개업한 지 45년, 손수 분만시킨 아이들이 3천여명이나 되는 지금에도 조산사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시며 환자에게 정성껏 대하신다. 인터뷰하는 이 시간에도 나주에서 선생님께 진찰받으러 왔는데 어디시냐고 핸드폰이 울린다. 나이가 드셨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시란다. 친근한 친절 어머니같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셨다.

우리학교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광주 수피아 여고시절, 조회시간에 크레인 박사가 오셔서 전주에 간호학교가 설립되었다며 학교에 대하여 P.R.을 하셨지. 이 시절은 끼니가 어려운 시절이었어. 공부는 하고 싶는데 학비가 없던 차에 크레인 박사님 권고로 우리 학교에 오게 된거야.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다른 사람들은 방학때 집에가지만 나는 차비가 없어서 방학동안에도 실습을 하였지. 그러니 학비나 낼 수 있었겠어? 아, 생각만해도 눈물나게 고마우신 변마지 선생님, 그 분이 아니면 오늘 내가 없었을 거야. 2년반 동안이나 학비를 대주셨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할 때마다 내 손을 잡고 격려하셨지. 변마지 선생님이 내 가슴에 심은 사랑은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 그러니 자연히 학교를 사랑할 밖에……

45년동안 조산원을 경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죽은 산모 살린일이지. 사십년 전만해도 집에

서 거의 해산을 하였는데 이 산모는 잔류태반으로 출혈이 심하여 아이는 죽고 실신하여 가슴만 뛰더라니까.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고 돈이 없어서 수혈을 못한다하여 가진 돈을 털어 미역국을 끓여 주고 왔지.

수년 후 내가 왕진을 갔다오니까, 무등산에서 생산되는 좋은 김치거리가 부엌앞에 놓여 있어서 물어보니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에게 드릴 것이 없어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 때 장마로 김치거리가 금값이던 때였지. 얼마나 고마운지… 조산원을 운영하는데 오늘까지 별사고 없이 운영해 왔어. 최근에는 내가 힘이 모자라 일 주일에 한명정도만 분만시키지.

후배 간호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환자들이 간호사 얼굴만 보아도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병이 저 간호사를 통하여 낫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이 오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전문간호사가 되었으면 해.

첫째는 바울처럼 낮은데도 높은데도 처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고 겸손한 간호사가 되었으면 하고, 둘째는 환자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간호사가 되는 것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40년의 조산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인데 사람들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서 도와주고 신앙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며 도움을 줄 때 당시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먼 훗날 다시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더구먼. 사람의 생명이 제일 소중한지, 내 생명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 몸이 고달파도 도움을 주었더니 마치 공을 벽에 치면 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정이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는데로 거두더라 이 말이야.

예간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첫째 : 모교를 사랑해야해.

둘째 : 사회에 나가 살 때도 내 모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화가 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후배 내 모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해.

셋째 : 모교는 모체같은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 모교의 발전에 협력해야 할 것이야. 모교의 경사는 바로 동문들의 경사라는 마음으로 말아야. 특히 모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강 건너 불 구경하지 말고 동문들이 일치단결하여 모교를 도와야지. 모교는 여자들에게 마치 친정같은 곳이야. 모교가 잘 발전해야 어디를 가서도 자랑스럽지 않겠어?

현재 직원을 두고 조산원과 산후 조리원을 겸하여 운영하시고 계신다. 남은 여생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를 할 것이라며 삼천여명의 생명을 분만시키신 귀한 손으로 떠나는 우리의 손을 잡고 후배들이 모교를 사랑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다.



◀ 박해옥 동문(1회)이 운영하시는 조산원 앞에서

어느 해 2월 13일



황민자

- 창작수필사 주최 1999년 제32회 등단상에서 「반달」로 당선
- 토요일수필 동인
- 현 서울우신초등학교 양호교사
- 31회 동문

일년 365일 중, 사람마다 제각기 의미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생일, 결혼 기념일, 부모님의 기일을 비롯하여 중요한 약속 등, 기억하고 기리며 살아야 할 날들이 많다. 나에게는 이런 다반사(茶飯事)적인 의미가 아닌 나만이 간직한 날이 있다. 그날을 운명의 날이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날자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몇 년 늦게 대학진학을 준비했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예비고사(지금의 수능)을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간대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원서접수를 할 때의 일이다. 혼자 공부를 한 까닭에 입시정보에 눈이 어두워 야간대학은 후기대학 입시전형이 끝나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골집에서 지내다 후기전형이 끝날 무렵 전주에 와보니 내가 가려고 했던 2부대학은 이미 원서접수가 끝나버린 뒤였다. 알고보니 주간과 야간을 동시에 전형했던 것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시험준비를 하고 어린 후배들 틈에 끼어 체력장까지 치렀던 일들이 모두 무위로 끝나게 되어 하늘이 노렸다. 대학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곳이라고 체념하기에는 나의 무지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계획했던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한 절망감으로 전문대학을 알아보았더니 마침 원서모집기간이었다.

그때야 간호대학이 생각났다. 줄곧 문과계통의 공부를 하려고 했기에 간호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없었다. 전주에는 두 곳의 간호대학이 있다는 것 정도가 지식의 전부였다.

전북의대부속 간호대학에 전화를 했다. 아무래도 국립대학이 등록금이 싸리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날 이미 원서모집이 끝났다고 하였다. 다리에 힘이 빠져 공중전화 앞에 그냥 주저앉았다.

어떻게 시작한 공부인데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다니... 봄을 앞둔 2월의 꽃샘추위보다 더 깊은 좌절감에 몸을 떨었다. 간호학도 내가 갈 길이 아닌가하여 돌아서려다 마지막 남은 학교에 전화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계열의 학교라서 원서마감도 당연히 같은 날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냥 미련이라도 없애자는 심산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랄까. 그러나 그 전화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신입생 원서마감은 2월 13일까지인데요”

“네! 내일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수화기를 놓았던 그날은 12일이었던 것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내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다음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원서를 접수하였고 나는 예수간호대학 학생이 되었다.

그 뒤 대학생활은 감사할 일들로 넘쳤다. 여고시절에 대학진학을 놓고 겪었던 부모님과 의 갈등과 얼마간의 직장생활도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였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누군가 나를 기독교 간호사로 만들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느낌에 전을 하였다. 그것은 대학생활을 하는 힘이 되었다.

어려웠던 학과공부에서 재시험에 한번도 안 걸리는 행운과 함께 장학생이 되어 학비걱정에서 해방되니 기쁘어요, 방학이면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거뜰히 졸업을 하게 되니 감사했다.

낮에는 직장으로 밤이면 학교로 힘겨웠을 야간대학에 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대생들의 구직난이 심각했지만 졸업도 하기 전에 병원에 취업이 되었으니 이 또한 축복이 아니었던가. 예비하여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지금도 입시철이 되면 그 때가 생각나곤 한다. 허탈감으로 막막했던 가슴이 탁 트이던 날, 내 앞길이 먹구름으로 뒤덮일 것만 같아 불안했던 마음을 환하게 했던 그해의 2월 13일. 그 하루가 없었다면 백의의 천사가 될 꿈에 부풀어 잠 못 이루던 가관식의 가슴떨림이나, 낮은 자 되어 봉사하고 싶었던 간호사의 생활, 그리고 양호교사라는 지금의 일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고마운 날이요 잊지 못할 날이다.

동문회소식

제46차 정기총회 및 모교 50주년 희년 기념행사 안내



제46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31일 모교의 Seel 기념채플에서 모교 49주년 기념 예배를 마친 후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동문회도 전국 각지에서 1회부터 46회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 졌고 작년 동문회 결산 및 사업보고 그리고 2000년 동문회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이미 회원들께서 소식을 받으신 바와 같이 새밀레니엄의 장을 여는 2000년은 개교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금번 동문회에서는 2000년도 사업계획과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 2000년도 일반 사업계획

1. 동문 선교사 지원사업 : 파키스탄, 네팔, 중국, 필리핀
2. 동문회보 발간
3. 회원 경조사 축하 및 위로
4. 모교 발전기금 계속 확보
5. 모교 후배(재학생) 장학금 지급
6. 모교 특별행사 지원
7. 모교 학생회 축제 지원
8. 모교 학보사 지원
9. 모교 우수 졸업생 상훈
10. 모교 졸업생 선물 기증

※ 50주년 기념 특별 행사 계획

1. 개교 50주년 기념예배 : 2000년 5월 30일 오전 11시, Seel 기념 채플
2. 동문의 밤 개최 : 2000년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전주 리베라호텔
3. 해외 동문을 위한 Tour
4. 모교의 4년제 승격을 위한 지원사업

졸업회기별 대표자 회의

졸업회기별 대표자회의가 지난 8월 17일 모교

의 프리차드 홀 102호에서 동문회 상임 이사들과 각기 대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먼저 공순구 회장이 대표자회의 소집 취지로서 내년도 개교 50주년 행사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회기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동기들을 참석토록 하는 사항과 상임이사회에서 4년제 대학 승격을 위한 준비로 총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발전기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각 회기별 대표들은 동문회에서 안내문을 전 동문들에게 발송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졸업회기별 대표자회의를 앞으로 활성화하여 동문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표자회의를 마쳤습니다.

동문소식

▲ 동문 여러분의 많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 공순구동문회장(2회)이 11월 5일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부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 재상봉을 맞이한 21회 동문

1. 개교49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5월 31일 Seel chapel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별히 현 양광자 학장의 근속 1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 학교 이사장 대행인 양순복 동문회 증경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공순구 동문회장이 동문을 대표하여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2. 졸업 25주년을 맞이한 21회 동문6명이 서울, 마산 등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동문 재상봉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 목회간호 기초 과정개설
1999년 8월 31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주간(총68시간)에 걸쳐 각 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필요시 기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회간호 기초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총 수강생은 목회자(2명), 사모(6명), 교인(15명), 기독간호사(11명) 등 총 34명 이었으며 앞으로 기독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간호 상급과정을 개설할 계획에 있다.
4. 간호학 연구소 소식(소장 김강미자 교수-15회동문)
 - 1) 산학협력체계를 통한 실습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Preceptors Workshop
1999년 2월 4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신경림교수를 초청하여 우리대학의 학생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임상실습강사(예수병원의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 2) 1999년 2월 26일 우리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컴퓨터 파워포인트 활용방법, 7월 5일은 컴퓨터의 특수기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3) 제3회 학술세미나를 “21세기를 향한 간호벤처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주제강연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의숙 박사가 하였다.
 - 4) 예수간호논문집 제12권 1호(ISSN 1229-5027)를 5월 31일자로 발행하였다.
 - 5) 1999년도에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 1) 임상실습 지도자 교육 효율성 영향요인연구-김강미자, 김금자, 윤진, 황성자 교수
 - 2) 기독교인 영적안녕과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차영남, 임혜경, 한혜실, 정정숙, 정여숙 교수
 - 3) 3년제 간호대학 전공 심화과정에 관한 연구-윤배, 장효순, 공은숙, 김근곤 교수
 - 6) 간호학연구소 연구기금으로 황영례 동문(4회)께서 100만원, 김의숙 박사(연세대학교 간호대학)께서 30만원, 대홍정판사에서 50만원을 기탁하였다.(감사합니다)
5. 예수간호대학 50년사를 2000년 6월에 발간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다. 편찬위원은 양광자 학장, 김강미자, 김금자, 윤배, 장효순, 윤진 교수이다.
※동문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기타자료들을 보내주십시오.
6. 교수동정
 - 1) 김금자 교수(16회 동문) : 학사지원처장으로 보직 발령 받았다.
 - 2) 임혜경 교수와 황성자 교수(16회 동문) : 지난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문들에게 알립니다

예수간호 동문회보는 모교 및 동문회, 동문 회원들의 활동소식을 모든 회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창간되었습니다.

동문회보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2400명 동문간의 우의와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통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회비 납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들의 주소, 연락처, 소식을 보내주십시오
직장 또는 지역단위의 동문주소록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회소식을 전해줄 통신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회에서 통신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652) 230-7751, 230-7720 / FAX (0652) 230-7790

▶동문회비 계좌 : 축협 501-11-17042-816 예수간호대학

예수간호대학 발전기금 출연 안내

1.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4년제 승격준비
- 도서관 발전
- 면학환경조성
- 학술연구기금

2. 대학발전기금 출연범위

- 동문
- 교직원
- 동문회 이사
- 25주년 재상봉기념
- 학생 및 학부모
- 뜻있는 단체 및 개인
- 기독교 재단

3. 기부형태

- 현금·적금(부금)·교육용 비품·기타자산

4. 납부방법

조흥은행 702-01-135580 예수간호대학

조흥은행 702-01-112407 공순구

연락처 : 예수간호대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68-1
(560-250)

TEL (0652) 230-7701

230-7730

230-8007

FAX (0652) 230-7790

5. 기부한 분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편집위원

김강미자, 박정순, 김봉선
윤진, 양복순